

남원의료원, 혁신도정상 우수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3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식에서 지방의료원 최초로 소아 아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성과 인정률 안전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남원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지방의료원 최초로 소아 아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되고, 국비1억3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오진규 원장은 "남원의료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아이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정부 세종청사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행사

남원시는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실시했으며, 행사는 소방청과 남원시의 기관 간 자매결연에 따른 상생 협업으로 진행된 첫 행사로,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와 다양한 농수산품 직거래장터로 가득 채워졌다.

남원시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사업 성과 사진을 전시하며 기부자에 대한 관심 유도과 함께 남원 가을축제(국제드론제전, 흥부제, 국가유신이행 등)와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특히 홍보부스 방문객들이 답례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김부각 △사인머스켓 △황진이 △참기름·들기름 세트 △조청 세트 △추어탕 △화장품 △방짜유기 등을 전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기후재단 대응 방법 교육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9월 23일 관내 통장 51명을 대상으로 기후재단 대응 교육을 진행해 산불과 홍수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쉽고 실용적으로 교육했다.

통장들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재난 상황시 신속한 대응과 안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 이번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옥천인재숙 강사 7명, 장학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24일 옥천인재숙 강사 7명이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옥천인재숙의 강사 6명과 김영철 전 교무실장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지역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더 큰 꿈을 키워가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장학금을 기탁한 강사는 그3 영어 담당 유상호 강사를 비롯해 장성준, 권준욱, 서정만, 오성환, 홍원기 강사와 퇴직한 김영철 전 교무실장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 인재 양성에 보답하자"는 뜻을 함께 실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추석맞이 나눔으로 희망 전하다

정인스님, 암환자·독거노인·장애인 100명에 훈훈한 온정



추석을 앞두고 JG그룹(대표 박성현)과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북지회 전주시지회(회장 정인스님, 연필마을 자비원장), (사)한국장애인고용문화협회 전주시지회(회장 정인스님, 무에서 주지)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22일 오후 전주시 서소동동 JG그룹 본사 사무실에서 열린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는 암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100명이 초대돼 풍성한 명절 선물을 전달받았다.

JG그룹과 지구커퍼가 전액 후원한 이날 행사를 통해 대상자들은 햅쌀과 참향환, 산양산삼 건강보조제, 생활용품, 텀블러 등 11종의 선물을 받아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인 스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제이씨 그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어려운 이웃의 결을 지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창승 전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도 함께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창승 전 시장은 "2011년부터 나눔을 이어온 정인스님의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며 "정인 스님과 후원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하며 "종교는 다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정인스님의 훌륭한 정신에 반해 지난 15년 전부터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역시 "인정이 메달라가는 시대에 이렇게 온정을 나누는 자리가 있어 기쁘다"며 "이 단체의 봉사의 손길로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만호 기자



이날은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이어온 이들에게 표창장도 수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JG홀딩스 윤여순 대표가 받았으며, 전주시장 표창은 박미경·신재숙·이연순 씨에게 돌아갔다.

완주군수 표창은 신혜경 씨가, 정동영 국회의원 표창은 심경숙·최송자·강태우 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이성운 국회의원 표창은 이상일 씨에게, 문승우 도의장 표창은 이기라·김진숙·최강한 씨에게 수여됐다.

윤여순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JG그룹과 지구커퍼 임직원 모두가 더 열심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해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몸이 아프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대신 물품을 수령하여 전달하고자 방문하기도 했는데 물품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봉사활동은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큰 선물을 전달하는 봉사단체의 따뜻한 온정에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을 것 같다"며 봉사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정인 스님은 두 손을 모아 "오늘 이 나눔의 잔치를 펼칠 수 있게 후원해 주신 JG그룹과 지구커퍼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람과 행복을 나누는 일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추석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울림을 남기며 풍성한 한가위를 앞당겼다. /이만호 기자



무주소방서, 2025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가 24일 무주소방서(무주군 무주읍 최북로7)에서 '2025년 재난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무주소방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 지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무주소방서(무주군 최북로7)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 진압 △긴급복구 등 실전 상황을 연출하며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각본 없는 입체적 훈련 방식을 도입해 능동적인 현장 지휘·통제 능력을 끌어올리고, 문제점 발굴과 개선 방안 논의도 병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위험물 화재 대응 현지 적응훈련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3일, 주)재성에서 위험물 화재 대응 현지 적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5년간 도내 위험물 사고가 19건 발생하고, 이 중 제4류 위험물이 14건(7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서는 △위험물 특성 및 저장 현황 파악 △사고 유형별 대응전술 적용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관계자와 합동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사고 예방·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5 제9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에서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청소년지도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9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회는 청소년 활동 상담 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지도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인 정책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함께 웃고 함께 빛나는 특별한 하루'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청소년 현장에서 헌신해온 지도자 25명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의회 의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어 김제에 귀촌해 독립채방을 운영하는 최별 오느책 발 대표가 전북에서 발견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지도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과 조별 미션 워크숍인 '청소년지도자 학습동아리 시계 공유회'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연대와 배움의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장수지역 농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

남원시와 장수군 농협 임직원들은 24일, 장수군청과 남원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 상호 기탁식'을 열고 총 1,832만원을 상호 기부해 지역 상생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 춘향골·지리산·운봉농협 조합장 장수·장계농협 조합장 농협 남원시지부장(오영석)과 장수군지부장(김성수)이 함께했다.

기부금 전달액은 남원시 922만원, 장수군 910만원으로 남원에서는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 450만원,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280만원, 운봉농협(조합장 오영달) 212만



원을 장수군에 기탁하고, 장수에서는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60만 원, 장계농협(조합장 박정용) 450만 원을 남원시에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고향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농업인파를 통해 농업인파 지역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으며, 이성호 부시장은 "앞으로 두 지역이 더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이정우 부군수도 "농협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비주는과일오빠 남원점, 사인머스켓 3백 상자 기부

남원시는 지난 23일 장비주는과일오빠 남원점(장소 재현)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인머스켓 300상자(환가액 6백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원점에서는 지난 2024년 추석에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포도 312박스를 기부한 바 있으며,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소재현 점장은 "저희 가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남원 시민들 덕분이며, 올 추석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자율방범대, 백미 30포대 기부

남원시 아영면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율방범대(대장 이영수)가 100만원 상당의 백미 30포대를 아영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해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 물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영수 대장은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의 연대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금연 아영면장은 "감사한 손길을 주신 아영면 자율방범대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